

바라밀현장

보리방송모니터회의 모니터 봉사자들

설립 13년째,
'주일 쉽다' 등
문제방송 중단 받아내기도
타종교 비해 '걸음마' 수준
인재양성 위해 교육 실시



◇16일 서울 가회동 보리방송모니터회 사무실에서 열린 모니터링 회의에서 김재일 회장(앞줄 왼쪽)과 김기량 부회장(오른쪽)을 비롯한 모니터 봉사자들이 TV 프로그램을 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라디오, 공중파 텔레비전, 케이블 TV... 현대인에게 있어 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루 종일 뉴스와 볼거리, 들을 거리를 쏟아내는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지만, 이들 방송이 전하는 정보가 항상 '진실'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설립된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불교계의 유일한 모니터링 단체로,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방송의 불교 왜곡을 감시하고 시청자교육을 통해 시청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16일 서울 가회동 사무실에서 열린 모니터링 회의의 현장을 찾았다.

"지난 주 방송된 드라마 '보디가드'는 요즘 드라마에 유행처럼 등장하는 '폭력'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자웃음을 조장하거나 욕설이 등장

바른 방송 선도하는 '미디어 사천왕'

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모니터링 회의는 한 주간 방영된 TV프로그램 중 지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봄 실시한 모니터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6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방선희씨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시청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교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폄하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출연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신경 써서 듣는다"고 말한다.

올해로 설립 13년째를 맞는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지난 1993년 MBC-TV '행복예로의 초대'라는 선교방송을 중단시켰고, 95년에는 '주일은 쉽다'라는 종교 용어가 등장하는 신원 에벤에셀 의류광고의 광고 중단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육성해 내고 있는 타종교와 비교하면 불교계 모니터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때문에 보리방송모니터회는 현재 봉사자들의 회의 결과를 모은 방송모니터 보고서를 펴내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니터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불교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겐 '보리방송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재일 회장은 "교계 단체나 종립학교 등에서 모니터 교육을 요청하면 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며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인터넷 사이트(http://boribulgukto.or.kr)와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전화로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다. (02)712-5811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탁마없으면 죽은 공부'

"틀린 수행법에 오도될까 우려"
선객 지도, 비판서 발간계획

"사라져 가는 선지식의 점점과 범거량 문화가 시급히 복원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기회 지도법사인 강정진 거사의 <영원한 대자유인>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다음카페(http://cafe.daum.net/buddhajukbil)에 '장군죽비'란 별칭으로 올린 청봉스님(63, 극락정사 주석)은 강정진 거사의 공개 범거량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봉스님은 "법(法)은 이론이나 말에 있지 않으나 '영원한 대자유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강 거사의 현

란한 말씀씨에 수행자들이 오도될까 우려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청봉 스님은 "현재 우리 승가에서 '법을 거량한다, 탁마를 한다'는 풍토가 거의 살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실상의 진리를 입을 열어 말하는 죽시 어긋난다'는 개구족작(開口即錯)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 범거량조차 하면 안되는 것으로 치부해서 입들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탁마없는 공부는 죽은 공부"임을 강조하는 청봉스님은 이번 <영원한 대자유인> 비판도 이런 연장선에서 봐 달라고 주문했다. "탁마가 얼마나 공부인들에게 요긴한 것인가는 조사들의 어록을 읽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어록들이 이 범거량으로

'영원한 대자유인' 저자와
공개 범거량 제안한 청봉스님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문답 가운데 공부가가 익어가고 그러한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것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이번 <영원한 대자유인> 논쟁을 계기로 범거량 문화가 살아나길 바란다는 청봉스님은 다음카페와 극락정사를 찾아오는 선객들을 지도하는 한편 조만간 <영원한 대자유인> 비판서를 또 출판사에서 발간할 계획이다. 청봉스님은 동아병원 원장, 동아의료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석사 조실 해암 스님의 유망상자로 공부하다가 뒤늦게 출가(85년), 경허-만공-해암스님으로 이어져 오는 법을 이었다고 한다.

김재경 기자



◇'범거량 문화' 복원이 절실하다는 청봉스님.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토니 팩커 (T)

매순간 열린마음, 정진 강조

<현존의 경이로움(The Wonder of Presence)>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토니 팩커는 영적인 성장에 관한 의문들에 대한 깊은 관점을 제시한다. 팩커의 무종파주의적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팩커는 "우리 각자에 대한 거대한 도전은 현존의 경이로움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창조적인 원동력입니다."고 말한다. 팩커는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깨어있음을 통해 공포, 상념,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에 따르면 이해와 사랑, 지혜의 출현과 만발은 어떠한 전통이나 그 역사, 또는 영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혜의 획득은 사람들이 스스로 공포와 쾌락,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경이로움 속에서 들을 때에만 가능하다. 동시에 '나'라는 생각'에 대한 관심이 고요히 정지되었을 때, 비로소 천지(天地)가 개벽하듯 지혜의 문이 열린다. 인생의 신비와 정수는 열린 마음과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미국 샘물센터(The Springwater Center)의 창시자인 토니 팩커는 원래 선종의 의식과 공안(公案)에 능통한 선(zen) 수행자였다. 그러나 '현대의 붓다'로 불리는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을 접한 뒤에는 깨달음에는 어떤 수행법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팩커는 지금 매순간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과 즉각적인 알아차림과 정진을 강조한다. 그녀의 '진리는 어떠한 수행법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가르침은 '붓다말마(Buddhadharma)'와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난다.

질문: "불교의 많은 수행법 가운데, 당신은 정말 아무런 방법도 주장하지 않겠는가?"
팩커: "아니요,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순간 무슨 일을 하는 동시에 마음을 챙기며 보고 들읍시다. 만약 당신이 그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말한다면 폐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이튿날이길 좋아하죠? 사람들은 내게 '방법 아닌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수행을 하건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

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생각은 일어날 것입니다."

선 수행자였던 팩커의 수행관은 승산스님이 이끄는 관음선원 수행자들과의 대담에서도 잘 나타난다.

질문: "공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요함과 공(空)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팩커: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은 각자의 예고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늘 돌려싸고 있습니다. 공(空)과 적정(寂靜)은 어떤 방법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그곳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공과 적정의 마음 상



◇토니 팩커와 샘물센터.

진리에 대해 의문 품고
듣고, 볼때 지혜 획득
일상 생활속 자유는
알아차림 통해 가능

태는 다양한 수행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인위적으로 얻어진 공과 적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토니 팩커는 고정된 수행법이나 테크닉,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며 '단순한 깨어있음(awareness)'을 강조한다. 선 수행자로서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을 접했던 그의 가르침은 "불성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이라는 입체적인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재경 기자

NAWANG KHECHOG

"티베트 불교 라마승 출신인 피리 연주자 나왕 케축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강한 에너지와 느낌을 느낀다. 이는 티베트 교원의 에너지라 해도 좋고 히말라야의 영적인 힘이라 해도 좋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강하고 신비한 에너지를 받는다."

김진욱 (음악평론가)

대나무 피리에 실려온 영혼의 선율

나왕 케축 '카루나(慈悲)'

NAWANG KHECHOG · KARUNA

- '실크로드'의 기타로(Kitaro) 프로듀스 · 협연
- 미국 인터넷 음악 사이트 ALL MUSIC GUIDE ★★★★★

TEL: 522-5626

www.buddhanews.com

탄허스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와呑虛門徒會에서는 금년 9월 30일을 기하여呑虛大禪師 法語集을 간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법어 · 시 · 계송 · 계첩 · 서간문(편지글) · 기념사건 등 탄허스님과 관계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면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

주지 김현해 합장 (033-332-6664~5)

자료연락처 :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전화 : (02)732-2403~4 팩스 : (02)739-7565